

# ‘여성불자 108인’ 최종 확정

## 불교여성개발원 전문성·사회활동 경력 등 기준 선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지난 1월부터 추진해 온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위한 여성불자 108인’의 명단을 9월 17일 공개했다.

이번 선정작업으로 여성불자들 간의 정보교류와 인력활용이 용이해지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불자들의 위상이 부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개발원은 앞으로 매년 108인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인재풀(Pool)을 형성할 계획이다.

여성불자 108인 선정은 불교계 인력에서 많은 여성불자들이 전문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체계적인 자료정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발원은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불자들을 발굴해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선정 작업을 실시했다. 개발원은 교계 신문, 잡지 등 언론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된 1200명을 종단, 신행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구분, 추

선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계종 총무원 부장급 스님들과 인원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공종원 한국불교인문학회장, 왕선사 부산여성불자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선정위원들이 세 차례에 걸친 선정위원회를 갖고 108명을 선정, 9월 3일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교단 및 사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 여성불자 △포교, 사회봉사,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경력을 인정받은 여성불자 △신심이 깊고 수행력이 높아 널리 귀감이 되는 여성불자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08인은 오는 11월 27일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3주년 기념법회 때 첫 만남의 자리를 갖고 인증서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여성불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여성복지와 교육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불교와 나의 삶’을 주제로 한 이들의 신행수기와 경력사항을 모은 자료집도 발간될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분야	이름	분야	이름
경계	유옥현(금토상사 대표이사) 이영숙(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금자(주)실업자	보건의료	나정자(불자약사보리회 명예회장) 도분순(소아과 의사, 포교사) 주양자(전 한국여의사회장)
	교육		복지
사회운동		인문·출판	
	자원봉사		포교·신행
단체		정서·정부	
	문화예술		불교학자
법률		법률	

### 북한산·천성산 관련 일지

**북한산**  
△1998. 10. 8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동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 결성 △2001. 10. 24 관동도로 건설 저지를 위한 불교 대책위 출범식 및 제1차 결의대회 △2002. 2. 18 LG 건설 회동사 비구니 스님 폭행 △2002. 3. 5 조계종, '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계 결의대회' 개최 △2002. 7. 18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3보 1배 △2002. 8. 14 조계종 공대위·시공사 북한산 터널 노선 재검토 합의 △2002. 12. 4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북한산 관동도로 전면 백지화 공약 발표 △2003. 6. 5 노선재검토위 활동 종료, 의정부 우회노선 4명, 북한산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 2명, 북한산 관동노선 5명.

**천성·금정산**  
△2002. 1. 21 금정산 범어사 경내계곡 고속철도 통과지대 대책위원회 출범식 △2002. 4. 12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 시민·종교대책위원회 출범식 △2002. 7. 24 내원사 선방 및 사부대중 삼보일배 △2002. 10. 14 지출스님과 내원사 스님, 분도수녀회 수녀 8명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구간 도보순례(18일 회합) △2002. 12. 1 제8차 탐사회의 참가 삼보일배 △2002. 12. 4 민주당 노무현 후보 관동대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백지화 공약 △2003. 2. 5 지출스님 부산시청 앞 단식진정 시국, 3월 14일 회합 △2003. 5. 12 시민종교대책위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2003. 8. 13 지출스님 부산시청 앞 3000배 정진 시국

# “참여정부, 反불교·환경 포기”

## 불교계, 천성·금정산 기존노선 강행 ‘폭거’ 규정

정부의 북한산 관동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기존 노선 강행 발안에 대해 불교계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 포기 선언이자 반불교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당선 후 1400여 중진 스님들 앞에서 재차 약속했던 부분인 만큼 불교계의 자존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의정부 회동사 부지가 공사 구간에 들 어간 부분과 관련해 서도 “총무원 차원에서 전통신찰 보존법 위반 등으로 법적인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청 앞에서 매일 3000배를 진행하는 지출 스님도 “정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3000배를 지속할 뿐 아니라 환경부·문화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김철우 기자

미 밝힌 바 있는 불교계 거부 의사를 무시한 것 뿐만 아니라 공사 강행을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우리는 관동저지를 위해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단식 정진과 철마선원 재진입 등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해 관통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신찰 보존법 위반 등 소송도 준비  
단식·철마선원 재진입... 공사 저지  
전통신찰 보존법 위반 등 소송도 준비

### 문화재에 대한 국민인식 달라져야

## 관람료 인상요인... 적절한 때 검토

### 조계종 관람료 위원장 명섭 스님



9월 17일 관람료사찰 전체회의에서 관람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명섭스님(화엄사 주지·사진)에게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현안 및 관람료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들었다.

—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가?  
“물가인상분이나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보면 현재로서도 인상요인은 충분하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절한 시기를 택해 인상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 지난 2000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내는 등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문화재관람료가 찬 곳도 없다.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며, 문화재관람료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공인 입장료 수입을 공원 내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국립공원 내 21개 사찰, 2억여 명의 토지를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 보수비 명목으로 입장료 수입의 10~30%를 불교계가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장기적으로는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불교계의 권익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 관람료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밝혀 달라.  
“입장객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람료 사찰마다 안내책자를 비치하는 등의 소강 문화재 안내의 질적 향상과 포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 ‘멸빈자 사면’ 논란 재연

## 월서 스님 “법규위 법리요인 잘못 결정”

### 법규위 “특별법에 따른 심사개시 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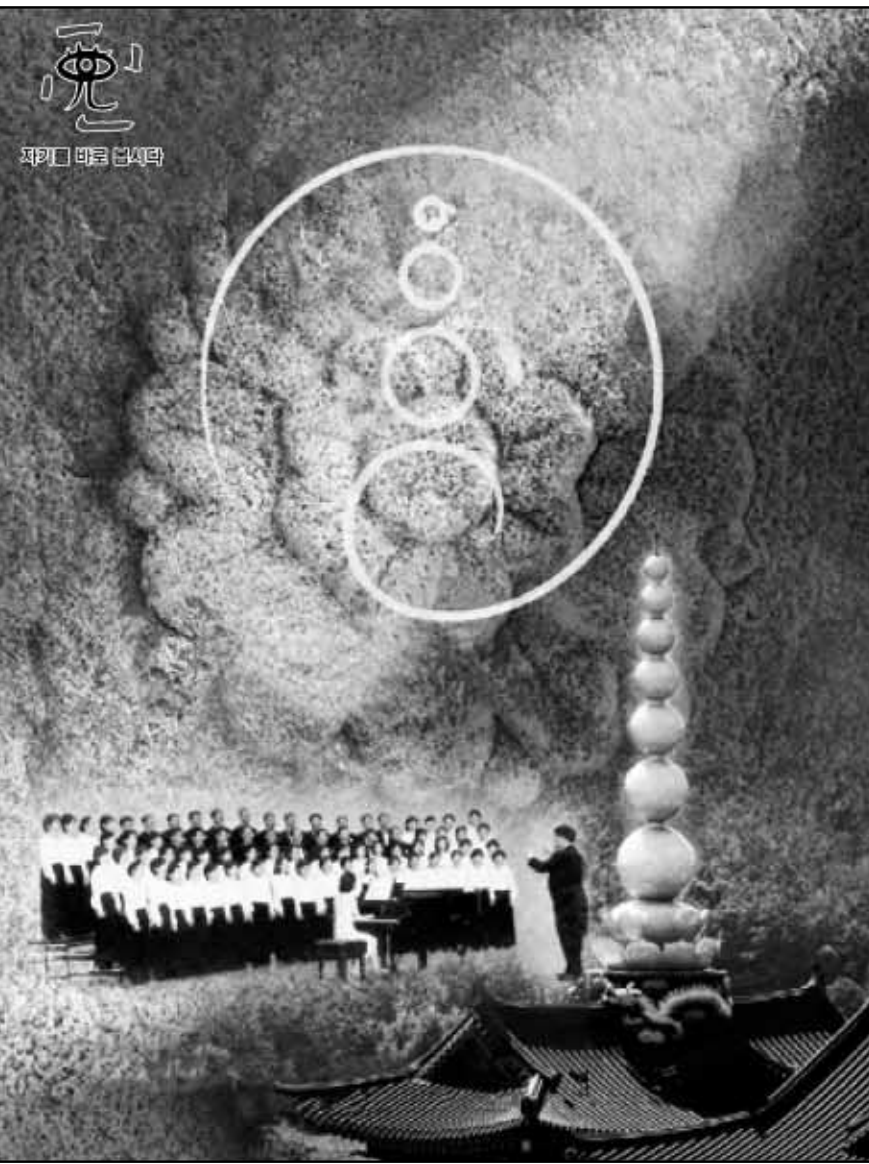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스님이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법규위원회의 심판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멸빈자 사면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월서스님은 9월 17일 “정우스님으로 멸빈자이므로 심판청구 자격이 없으며 법규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한 ‘행위’를 심판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규위원회는 98년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정우스님이 청구한 ‘특별법이 종현 제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료

이 유예상태 확인 청구’ 건에 대해 지난 7월 “특별법에 의해 심사개시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규위원장 천제스님은 “특별법에 계류 중인 이상 멸빈 징계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권자 자격이 있다”며 월서스님의 주장을 일축했다. 천제스님은 또 “정우스님의 청구 건은 종현소원으로 봐야한다”고 말하고 “종현 소원에 대한 심판은 법규위원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라며 “당시 심판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원**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자장일비)  
5호선 동대문순동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창 배려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 일시 : 불기2547(2003) 10 3(금) 오후 7시 ● 장소 :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초/대/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화사하게 피었던 온갖 꽃들이 열매로 화하여 윤회의 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에서는 합창단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무의탁 독거 노인들에게 보시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율에 실어 전하고자 음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지원장 혜묘 합창단 장 부 정 숙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 후 원 : 제주도불교총연합회, 제주도, 제주시, KBS, MBC, JIBS, KCTV, 현대불교신문, 정토신문